

[성 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30:5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박세덕
편집인: 윤성천
전화: 031-768-1980
팩스: 0303-0944-2936



2024년 10월 1일 (화)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43호 1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

제45회 정기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총회의 "제45차 정기총회"가 2024년 9월 10일(화) 충청남도 대전에 크고 아름답게 신축된 복용교회(박석중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미주 노회장 이재영 목사(캘거리 벨엘교회)의 기도와 총회장 채희근 목사의 사무엘상 7장 3-14절을 중심으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제목의 강론을 하고 기도함으로 총회를 시작하였고, 회원 점명은 기 명찰 배부로 출석을 확인하니 총회원 221명 중 146명이 출석하여 개회성수가 되므로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새로운 임원 선출을 통해서 총회장에 박세덕 목사, 총무에 김정경 목사, 서기에 남성호 목사, 부서에 곽동삭 목사, 회계에 박천수 장로, 부회계에 심용보 장로가 선출되어 45차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다.

신임 총회장 박세덕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337장 1절을 부르고 기도한 후 제2부 회의를 시작하고, 석진오 목사를 서무서기로 지명하였다. 각부 보고 및 각 노회 보고는 배포자료로 서면 보고한 것을 받기로 하였다. 목사 안수 청원은 김정경 목사가 유준광, 손승호, 송기한 강도사를 안수 청원하고, 10월 1일 오전 11시에 광흥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로 선택 청원은 입학성광교회 2명, 서광교회 3명, 순천평화교회 2명, 이상 7명을 장로 선택 청원하니 받기로 하였다.

각 노회 및 총회 상임위 헌의안의 결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였고, 2)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설치하기로 하였고, 3) 사경회 시 젊은 강사를 발굴하여 세우기로 하였으며, 4) 지교회 사경회 시 사경 강사를 교단 목사로 한정하기로 하였고, 5) 교역자 정년 연장에 대해 1년간 연구하자는 안건은 부결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결의한 후, 남성호 목사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총회장 박세덕 목사가 208장 1, 5절을 부르고 축도로 45차 총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원들 모두가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보다도 진지하고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기뻐하며, 사랑과 화평 가운데 총회를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린다.

기사 남성호 목사

신임 총회장 인사말



박세덕 목사
명륜교회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와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총회장으로 선출해주심에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총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선진들로부터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악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시대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서 "어찌할꼬?" 하는 심정입니다.

먼저 저 자신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드리려도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표리부동하지 않고, 인간적 정치와 술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투명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코앞에 심각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다음 세대는 준비되지

못한 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은퇴를 앞둔 교역자는 많아 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중에서 훌륭한 젊은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일꾼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성공한다면 소수정예의 젊은 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에는 먼저 우리들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모든 동역자와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제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조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총회장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우리 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교단,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은 바른 진리를 잘 계승하여 부끄럽지 않은 좋은 교단이 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덕 목사 드림

제45차 계신총회 임원소개

 총무 김정경 목사 우신교회	 총회장 박세덕 목사 명륜교회	 서기 남성호 목사 평강교회
 부서기 곽동삭 목사 서광교회	 서무서기 석진오 목사 본동교회	 회계 박천수 장로 상대원교회
 부회계 심용보 장로 영화교회		

계약신학연구원 신학생 모집

입학생 전원에게 100% 장학금 지원
www.kyeyak.co.kr

<p>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 성경을 바르게 깊이 있게 배우는 곳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길</p>	<p>문의처 입학 상담 010-3790-0159(유신승 간사) 진로 상담 010-8781-7471(이용주 위원장) 신앙상담 010-2586-0461(장백준 원장) 지원자격 고졸 및 동등학력 이상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p>
--	--

설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라

요한계시록 22:10-13, 20-21



김영완 목사
성천교회

고전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을, 영어성경 NASB는 "Maranatha"로 번역하였다. 이 구절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사용되었으며, 본문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도 "마라나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원래 아람어로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기도 구절"이었는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서 음역하여 *μαρὰνα θά* 로 쓴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재림 약속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마라나타'라는 인사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마라나타 신앙이란,

1.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는 것이다.

창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는 계 22:20의 예수님의 강림 선언으로 끝을 맺는다. 계 22:13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였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으로, 성도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뜻이다. 천지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또한 세상 끝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다. 이 말씀대로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미 거의 모두 성취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주님의 재림이다. 오

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도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고 하던 주님이 2천 년이 넘도록 오시지 않았으니 내 생전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재림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헤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교리 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가장 교묘한 속임수"라는 불신앙적이며 이단적 주장으로, 재림을 고대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처럼 주님의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벧후 3:9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지 2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모든 택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최후 심판 날 이전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택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재림이 지체된다고 원망하고 실망하며, 이 믿음에서 돌이키고 있다.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 그들도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며,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당면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즉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히 11:35절 이하에 보면, 극악무도한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아래서, 순교의 잔을 마시며 죽기를 각오했던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감내하며,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다. 연약한 여자 성도들조차도 비굴하게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을 연장받기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당하면서도 면하려 하지 않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산이나 직장을 빼앗기고 온갖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렸다. 말세를 당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하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글이 있다. 종교인은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으나,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녀 삼으심의 목적임을 믿는다. 종교인은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 신앙인은 좁아 길을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 종교인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 말하나,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종교인은 종말을 두려워하지만, 신앙인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산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나는 현실에만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마라나타 신앙인인가?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이다.

2.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고후 5:10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다. 본문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였다.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이다. 다시오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12절에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택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는 단지 주님이 오실 날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할 것이 없는 신자로 나타나도록 준비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악한 종으로 책망을 받을 것이다. 눅 12:47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라 하였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백보좌 심판이다. 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또 다른 책 즉, 인간의 죄와 행위가 기록된 책이 놓여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

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즉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마 25:34-36에 주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택한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셨다. 이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마 25:40).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것은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고, 구원운동에 협력한 것이므로,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심판 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찬송가 607장 "내 분향 가는 길" 3절에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 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하였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4절에도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봐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였다. 면류관은 영광의 상급을 말하며,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룬 것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하며, 주님 재림 때와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된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편벽되거나 오관이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성도의 참된 성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재림의 약속은 구약 성경에 1,845번, 신약 성경에 318번 언급되어 있다. 성경 30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주께서는 우리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이 일한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끝>

논 단

석진건 목사
도봉교회

서론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부분 교단에서 아동세례를 합법화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사안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의 입장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와 유사한 유아세례에 대하여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 세례(아동 세례)의 옳고 그름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소고는 아동 세례 문제보다 유아세례의 다양한 측면과 논쟁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1. 세례의 어원적 의미와 성경적 근거

먼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례는 영어로 Baptism, 헬라어로 βάπτισμα (바티스마)로, '물에 적시다'라는 뜻의 βάπτω(바토)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이는 '잠깐 잠그다, 찍다(to dip)', '목욕시키다(to bathe)', '씻다(to wash)'의 의미를 포함합니다(막 7:4, 히 9:10).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세례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갈 3:27, 롬 6:4)고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확한 명령이나 유아세례의 명백한 사례는 없지만, 여러 말씀에서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한 것으로,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영적 은혜의 언약에 따른 것이었고(창 17:1-14), 후손들인 어린아들도 할례를 통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 피흘림 없는 형태로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씻음을 상징하며 한 번만 시행됩니다(행 2:39, 갈 3:29). 구약에서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어린아들도 참여했으며(신 29:10-13, 수 8:35), 이스라엘 회중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대

하 20:13, 율 2:16). 따라서 신약에서도 어린아들이 구약의 언약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 역사적으로 보는 유아세례

1) 초대교회

유아세례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1세기와 2세기의 문헌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이미 그때부터 유아세례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도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D. 185년경 이레니우스는 "그를 통해 유아와 어린아이와 청년들과 노인들이 하나님에게로 거듭나게 된다"고 언급하여 유아세례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게로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 플레밍톤(Flemington)은 이레니우스의 다른 구절과 비교하여 볼 때 "세례 받는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아스에 따르면, 유아세례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은 4세기에 터툴리안과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터툴리안은 유아세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교부로서 그의 "세례론(De Baptismo)"에서 유아세례의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전까지 유아세례는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것으로 무비판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터툴리안의 견해에서 처음으로 반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유아들에게도 거부될 수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그의 세례 이해는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도 거절되지 않는다는 것에 기반하며, 갓 태어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유아들이 죄인들보다 더욱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어거스틴의 등장으로 유아세례가 공식 예전으로 확립되면서 결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원죄론을 확립하여 세례와 원죄의 사죄를 긴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의 확고한 주장은 터툴리안 이후 지속되던 세례 연기에 대한 반론을 극복하고 유아세례의 신학적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근거 위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생후 100일 이

내에 유아세례를 받도록 지도하며, 특히 죽음을 앞둔 유아들에게는 지체 없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2) 종교개혁기

중세에는 세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성례로 여겨져, 믿는 부모의 자녀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죄될 만큼 중요시되었습니다. 유아세례는 고대부터 지지와 반대가 있었지만, 중세 시대에는 큰 문제 없이 시행되다가 16세기 종교개혁기에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재세례파는 국가교회를 반대하며 유아세례를 거부하였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중생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재세례파의 견해

재세례파는 교회를 신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신앙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국가와 타협하여 국가교회가 된 것을 비판하며, 루터, 츠빙글리, 칼빈과도 분리되었습니다. 유아세례로 모든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제도적 교회 개념을 성경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교회와 국가의 통합으로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겼습니다.

나)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의 견해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은 유아세례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루터는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믿음의 고백을 강조했지만, 유아세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세례가 인간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도 유아세례를 지지하며,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고 믿었습니다.

3. 유아세례에 대한 개혁파의 견해

유아세례의 타당성은 개혁신학과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유아가 미성숙하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아도 하나님에 의해 구원

받을 수 있으므로,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유아들이 '자신의 지식 없이'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이는 유아세례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아는 신앙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로 한정되며, 그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나 믿음을 행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지 원인이 아니며, 유아세례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유아세례는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지금까지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와 초대교회, 종교개혁기의 논쟁들, 그리고 개혁과 신학의 문제를 짚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과 선조들이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동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통 개혁주의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세례 논쟁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아동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가톨릭의 세례 중생설을 따르거나 재세례파처럼 절대적인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함부로 베풀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 주: 유아세례와 아동세례는 교단마다 차이가 약간 있음. 유아세례는 3세 또는 5세까지, 아동세례는 12세까지로 함)

산소망교회

산소망교회 입당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 총회 동서울노회에 소속된 산소망교회(구 고읍중앙교회)는 경기도 양주시 엄상동길 36-26에 위치하고 있다. 약 두 달가량의 전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단장한 산소망교회는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1:30에 입당 감사 예배를 총회 산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배는 담임목사인 조충연 목사의 사회로 김정경 목사(총회 총무, 우신교회)의 기도 후 채희근 목사(총회장, 도봉교회)의 '오병이어 기적의 영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병이어를 나타내신 영적 이유 세 가지로 첫째 예수님의 권능을 믿도록 하려는 것, 둘째 작은 헌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도(講道)하였다.

이어 유영길 목사(증경총회장, 상대원교회)의 축사와 이용주 목사(증경총회장, 송탄북부교회)의 권면이 있은 후 이영수 장로(산소망 교회)의 건축 보고와 광고, 감사패 수여 및 박세덕 목사(명륜교회)의 축도

로 입당 감사 예배를 마쳤다. 입당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은 대략 250여명 정도 되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쓰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산소망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어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왕상 17:1-7)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적인 기쁨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모든 참여자들의 바람에 맞춰 진리를 파수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끝으로 산소망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본연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

기사 유성민 목사

총청노회 제1회 청소년연합수련회



총청노회는 2024년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속리산 알프스 청소년수련원에서 연합 청소년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참여한 인원은 교사포함 65명이었고 말씀은 사당제일교회 최요승목사가 "사사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사들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전했다. 특별강사로는 초월제일교회 방한을 집사가 "님아 그 무지개를 건너지 마오"라는 제목으로 동성애의

위험성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쳤다. 그 외에도 통성기도훈련, 레크레이션, 물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복음교회 청년들과 서광교회 청년들이 청소년의 리더와 찬양대로 헌신해 주었다. 수련회를 마치고 설문조사에서 85%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8%가 개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수련회에 참여하겠다는 가하는 물음에 93%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기사 김성복 목사

제3회 계신총회 청년연합수련회



2024년도 청년부 총회 연합수련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기"라는 주제로 8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충북 괴산군 화양동 관광농원에서 총 6개 교회에서 약 8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수련회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채희근 목사(도봉교회)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설교 말씀으로 자라나기 위해 중생의 중요성을 전했고, 이어서 김은택 목사(대구 예담교회)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최요승 목사(제일교회)가 "안드레 리더십"이라는 특강을, 한기삼 목사(북면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특강 내용과 관련하여 총 두 번의 셀 모임과 한 번의 셀조기도 모임이 진행되었고 김진영 청년(성산 교회)의 주도 하에 총 두 번의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으며 유신승 전도사(도봉교회)의 인도로 총 두 번의 찬양 및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폐회예배에서는 윤성천 목사(복음교회)가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제목으로 '다른 지체에게 마음을 넓혀 남을 배려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고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 장용기 강도사

24년도 제3차 지교회 탐방



2024년 6월11일 장로회에서 정읍시 소재 성안교회를 방문하여 교회를 살펴보고, 고재승 담임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를 드리고 후원금 전달과 식사교제를 한 후 2부 활동으로 주변동네 전도활동을 하였다. 준비해간 떡과 전도용 밴드로 전하였다. 이제는 전도 용품을 잘 받지 않는 때라는 것을 몸소느끼며 전도활동이 점점 힘들어짐을 느꼈다. 성안교회는 아직은 자립이 안 되어 총회의 도움을 받지

만 점점 발전되는 주변환경을 보면 교회의 미래가 열심을 내면 좋아질거라 생각된다.

장로회의 기도와 지교회 탐방활동으로 미력하지만 교단산하 지교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살림!!

기사 회장 박천수장로
총무 심웅보장로

계신장로회 세미나 개최

2024년 5월 29일 계신장로회주최로 안양평강교회에서 세미나로 모였다.

1부에 채희근 총회장의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2부에서 총신대학교교수인 양현표 교수의 [장로교회의 기원과 그 체계]라는 제목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믿음지키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복음전하는 일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장로직분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복음과 진리와 공의로 지교회를 섬겨야 하며 하나님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총회 임원들과 장로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로 계신장로회주최 제1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기사 회장 박천수장로
총무 심웅보장로